

이남호, “역사·민주시민교육 강화할 것”

〈전북교육감 후보〉

스타벅스코리아 5·18 역사 왜곡 관련 “민주주의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모욕 역사의 아픔,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기업 제품이 교육 현장에 스며들어선 안돼” 민주주의·평화교육 공동 선언 등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5대 실행전략도 제시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세운 이남호 후보를 둘러싸고 지지 선언과 사퇴 측구가 이어지며 선거전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0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시작 이남호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논란을 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역사 왜곡”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공간”이라며 “역사의 아픔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의 제품이 교육 현장에 스며들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및 산하 기관 사업에서 역사 왜곡과 반민주적 정서를 조장하는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교 기자제 납품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장학사업 등 학생 교육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 시민교육 5대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평화교육 공동 선언 △민주시민교육 주간 운영 △학생 참여형 민주주의 프로젝트 △민주주의 교육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AI 시대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 관독 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 활성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 고교 대상 ‘모의국회·모의헌법재판 특별 세

션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후보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 교수·연구자 424명 “이남호 후보 지지” 디에스판넬 “천 후보 지지”

이와 함께 전북지역 대학 교수·연구자 424명은 이날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이 학생들의 목표

상실과 교사 사기 저하 재정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남호 후보가 검증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학생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갖춘 인물이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디에스판넬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남호 후보의 급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디에스판넬은 “급품 살포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5년 현장 교육 경험을 가진 천호성 후보가 봉사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온 교육 전문가”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천호성 후보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와 교육·지자체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 선정

전북대, 200억 규모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단지지원사업 선정 AI 전환시대 ‘호남학’ 기반 연구거점 구축… 융합형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단지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역거점국립대의 인문사회 기초학문 연구거점 구축과 지역 정주형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교육부는 3개 대학을 선정해 선정 대학에 연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대학 내 인문사회 연구원 설립,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 대학과의 공동 연구 수행 등에 투입된다.

전북대는 ‘AI 전환시대, 호남학 기반 인문사회연구원 구축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마한·동학·관소리 등 호남 고유의 인문 자산이 집적된 현장성과,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여기에 대규모 피지컬 AI 연구개발 인프라를 결합한 융합 전략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는 전북대가 그간 축적해 온 대형 국책과제 수행 경험과 최상위권 국제학술논문 성과 등 기초 연구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6월 ‘전북인문사회연구원’ 출범을 목표로 기존 인문사회 분야 부설 연구소를 핵심 거점 중심으로 통합·재편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내 전용 공간을 즉시 확보하고 연구원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를 도입해 연구 역량을 집중시킨다.

아울러 두 개의 중점 연구소를 중심으로 융합형 연구를 본격화한다. ‘호남학연구소’는 지역 인문자산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AI 기반 고문헌 번역 플랫폼을 개발해 한국학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AI미래사회융합연구소’는 축소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진단하고,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설계·실증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형 연구인력 양성도 사업의 핵심 축이다. 전북대는 우수 박사급 학술연구교수를 단계적으로 대거 유치하고, 안정적 인건비와 주거 지원, 독립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펠로우십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학부 연구과제(U-REACH)와 석·박사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성장 사다리’를 구축, 지역에 정착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역 대학 교수·연구자 424명이 20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청소년의 상상, 전북의 미래로 피어나다’

전북교육청·전북자치도·익산시 공동 주최 ‘제3회 전북 청소년박람회’ 개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청소년의 상상 이 전북의 미래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관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내 청소년 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 단계부터 일부 부스 운영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행사를 만들어간

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사장은 △미래·진로 △지역·성장 △그린 △글로벌 △상담 △안전 △나눔 △스포츠 △예술 등 8개 분야 총 128개의 전시·체험 부스로 꾸며졌다.

미래·진로 마당에서는 인공지능(AI), 드론, 3D 프린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그린마당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대화용기 사용 캠페인이 진행된다.

또 상담마당에서는 MBTI를 활용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안전마당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생활안전 체험이 마련돼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안전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동아리 30개 팀이

참여하는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포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체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열린다

전북교육청은 원거리 학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차량 150여 대를 지원하고,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행사 운영에 힘을 기울였다

유정기 교육감 관한대행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한층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노사관계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문화 정착과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지방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생과 동반 성장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현장 사례 중심의 노사 상생 협력 방안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공무원 노조의 역할 △미래 공직사회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첫 번째 강의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 강사인 권기홍 노무사가 맡아 ‘사례를 통해 배우는 노사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관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북교육청지부가 참여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공무원의 진폐노동과 가짜노동,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오상근 기자

전주 학부모 소통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온라인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전북교육지원청은 20일 전주 학부모모회협의회 임원진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재원 회장(전주공업고)을 비롯해 부회장 감사, 총무 등 임원진과 학군별 대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부모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학부모회 밴드 개설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 우수사례를 학교 간 공유하고, 다양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교와 가정을 잇는 협력적 교육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캠프 사전교육의 모습이다.

도내 고교생 글로벌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뉴욕·뉴저지서 모의 UN 연수 진행 도내 고교 2학년 학생 60명 참여… 7월 24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지구촌 공동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는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FDU)에서 모의 유엔(UN) 중심의 연수를 받게 된다.

FDU는 빈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문 학교이자 UN 경제사회위원회 전문 학교로, 세계적 수준의 리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국제 현안을 주제로 토론과 협상 활동에 참여하며 외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는 등 실제 외교 과정을 체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또 UN 본부와 프린스턴대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리더들의 조언을 듣고, 웰스트리트와 9·11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세계 경제와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도 갖는다.

전북교육청은 연수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사전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1차 사전교육은 지난 16일 전주대 JJ 아트홀에서 열렸으며, 캠프 일정과 안전 수칙 안내, 지난해 참가 학생과의 만남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는 6월 20일 열리는 2차 교육에서는 UN의 역할과 모의 UN 특강, 모뎀별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지며, 7월 11일 진행되는 마지막 교육에서는 최종 오리엔테이션과 안전·보건(성)교육, 모뎀별 협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준비도를 높일 계획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단순한 해외 탐방이 아니라 지구촌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사전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3일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시설명회

KAIST·GIST·DGIST·UNIST 참여…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창조나래 시청각실 및 회의실에서 ‘2027학년도 대입 대비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시설명회 및 상담’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수험생들에게 대학별 전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명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국내 대표 이공계 특성화 대학 4개교가 참여한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방향 및 주요 특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별도 상담 공간에서 대학별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심 대학

의 전형 특징과 준비 방향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대학별 전형 특성과 평가 방향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강점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되고, 학교 현장에는 보다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